

광산업, 최첨단시대 이끄는 원동력

2006 국제 광산업전시회 개최 ... 광섬유 · 광케이블 · 광모듈 전시

9월5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한 <2006 국제 광산업전시회(International Photonics Exhibition 2006)>는 광세기 창조라는 주제처럼 광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케 했다.

전시장에는 미국, 일본, 중국 등 13개국 59개 해외기업을 비롯해 국내외 140사가 240개 부스를 설치, 광통신 부품 · 시스템, 광원, 레이저 기기, 광정보 기기, 광학기기 등 생산품을 선보였다.

1억~2억원에 이르는 원자 현미경의 가격을 4000만원대로 끌어내린 생산기업은 PC나 휴대전화처럼 개인 연구실마다 원자 현미경을 갖추는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.

도로 안개 유도등, 경관 조명용 LED(발광 다이오드), 실내 인테리어용 LED 등 생활 가까이 있는 전시품을 살펴 본 관람객들은 “운전중 거리에서 본 적이 있다”, “우리 집에도 한 번 설치하고 싶다”며 호기심을 보였다.

55평에 이르는 삼성전자 전시관은 접속함체-전주용 단자함-광 아울렛 등을 거치는 전화국에서 가정까지 광통신의 흐름을 보여주는 맥내광가입자망(FTTH: Fiber to the Home) 솔루션 구성도를 시연해 초고속 인터넷, 화상전화 등 서비스가 구현되는 과정을 한 눈에 살필 수 있게 했다.

또 광섬유, 광케이블, 휴대전화 카메라의 광모듈 등도 전시해 세계 최고 수준의 광통신 기술을 선보였다.

부르기도 어려운 부품, 장비에 싫증을 느낄 무렵 만날 수 있는 작품들도 눈길을 끌었다.

전통용기에 LED 조명을 부착한 도자기 벽등, 실내 조명등 등 작품은 색다른 조형미를 느끼게 했으며 레이저 분해 · 합성해 음악과 함께 선보이는 레이저 디스플레이도 관람의 재미를 더했다.

전시회는 9월8일까지 계속된다. (광주=연합뉴스 손상원 기자) <저작권자(c)연합뉴스-무단전제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09/05>